

담양 생태자원·특산품 환경친화적 예술로 풀어내다

내달 5일까지 대담미술관서 '꿈꾸는 예술정원' 결과물 전시
죽공예품 참빛 등 학생 20명작
"생태적 사유·제로웨이스트 실천"



참빛에 그림그리기 프로그램.

대담미술관이 지역적 특색과 생태환경을 예술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꿈꾸는 예술정원'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가 담양군 대담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대담미술관은 앞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예술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담양의 생태환경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총 7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뚝뚝뚝뚝 공예로 피어나다 △죽죽방방(竹竹方方) 공예로 물들다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꿈꾸는 정원가꾸기△생태건축의 아름다움 △나의 꿈 설계하기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기간 참여 학생들은 생태·지역 특성화·문화 예술 교육과 죽가공존 체험을 통해 담양의 죽공예품인 참빛, 바구

니, 고추장주걱 등을 예술적 정서가 깃든 작품으로 재해석했다.

전시 주요 작품으로는 대나무 참빛, 대나무집, 제로웨이스트 화분, 대나무 주걱 등이다. 먼저 대나무로 제작된 참빛은 전통적인 도구에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해 미술적 가치를 넘어 실용성을 갖춘 작품으로 완성됐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손수 제작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미래에 살고 싶은 집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나만의 친환경적 미니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대나무집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대나무의 특성을 재조명한다.

대나무를 이용한 제로웨이스트 화분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친환경적인



제로웨이스트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

대담미술관 제공

결과물이다.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실천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긴 작품이다.

전통적인 대나무 주걱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모두 갖춰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제작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 지역의 특산물인 대나무와 예술 교육을 접목해 자연 속에서 진로 체험을 통해 창의성 계발과 자아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나무 숲 죽녹원과 특산물인 대나무 등 자연과 사람의 상생 관계와 생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환경오염에 대해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만의 친환경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됐다. 일상 속 화학 제품과 플라스틱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친환경 제작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할 방안도 제시됐다. 대나무등 화분 제작 프로그램은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대용 화분을 제작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했다.

정희남 대담미술관장은 "담양의 생태 자원과 지역특산품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감상하며 생태적 사유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및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등 미술관 직업군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전시 및 진로 체험은 대담미술관 학예실(061-381-008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판소리 감상회'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내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창극단의 2024년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감상회는 지난 2022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선보인 기획공연이다.

공연은 이은비 창작부 상임단원의 흥보가로 시작해 김연옥 창작부 상임단원의 춘향가 '이별가'로 이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장영한 창

악부 상임수석이 심청가 중 심봉사가 논뜨는 대목을 연주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판소리 감상회는 지난 3월 공연을 시작으로 6월, 8월, 9월과 이번 27일까지 총 5회 진행된다. 창작부 단원들이 다양한 대목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박승희 예술감독의 해설을 더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이며 가격은 전석 1만원이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발레·오페라·합창·판소리... 연말 맞아 공연 프로그램 '풍성'

매주 토·일요일 광주공연마루서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상설공연'
특별공연 '송년의밤' 등 '다채'

연말을 맞아 발레, 오페라, 합창 등 풍성한 주말 공연 프로그램이 광주시민에게 선보인다.

25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광주상설공연'이 열린다.

먼저 2024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타악그룹 '열쑤'의 광주노정기 '토선생 찾기'가 이 기간 매주 일요일 무대에 오른다.

고전문학 '별주부전'을 각색한 타악 및 판소리 가족극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명

소들을 돌아다니는 별주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광주를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한다.

다음달 7일에는 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하이лай트'가 공연된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차이콥스키의 친근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술, 다양한 캐릭터로 사랑받는 작품이 올 연말에도 찾아온다.

이어 다음달 14일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이 무대에 오른다.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떠돌이 약장수가 순박한 청년에게 사랑을 이뤄주는 신비한 묘약이라며 써구려와인을 속여 팔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준비한

창작 뮤지컬 '나를 노래해'는 다음달 21일 무대에 올라 찬란한 노래로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요일인 다음달 13일과 20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공연이 기다린다. 13일은 '프로방스 색소폰 앙상블'이 아름다운 음색과 조화로운 선율로 준비한 '송년의 밤' 공연이 펼쳐지고 20일은 '명인 협연의 밤'을 통해 (사)창작극악단 도드리의 반주에 맞춰 명인들의 풍성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서양음악의 요소를 결합해 대중들이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연구한 무대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상설공연 '악화민성'

2024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30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대극장 전악당에서 상설공연 국악의 향연 '악화민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음악은 사람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는 뜻의 악화민성(樂和民聲)을 주제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관현악 연주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백대용 작곡 '남도아리랑'을 시작으로,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국립남도국악원 지선화 단원이 선보인다.

이어 서울시무형유산 아쟁산조 이수자 이자 보배심 진도 출신의 김영길 명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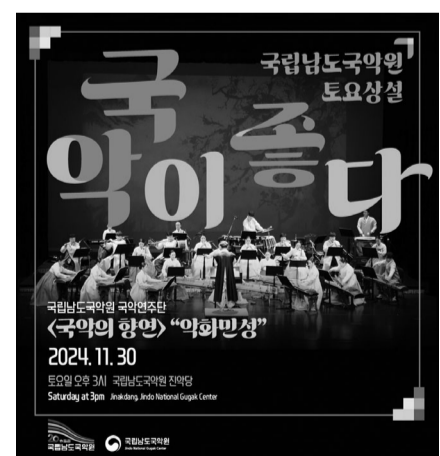
'한일섭류 아쟁산조 협주곡'이 국악관현악 반주와 함께 펼쳐진다.

또한 진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토속민요를 국악관현악 구성으로 편곡한 김백찬 작곡의 '오곡타령'을 단원들의 소리로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신도름'을 기악단 한재석, 한상욱, 정성연, 양태양 단원이 연주하며 토요일 상설 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노부영 예술감독은 "열심히 달려온 2024년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준비한 음악을 감상하며 장식하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힘차게 시작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마지막 상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2025 국립남도국악원 탁상달력'이 증정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ACC,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 위한 회의·강연

29일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평화 기억하기' 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9일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와 이를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10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평화적 인류에 가치를 조명한다.

먼저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관련기간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평화 기억하기 네트워크'에서 참여 기관들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

고 평화 비전을 논의한다.

행사와 함께 진행될 특별 강연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벨문학상과 인권·평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현대사 속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최태성 역사 강사가 '20세기 민주가 21세기 민주에게'라는 주제로 현대사의 질곡과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